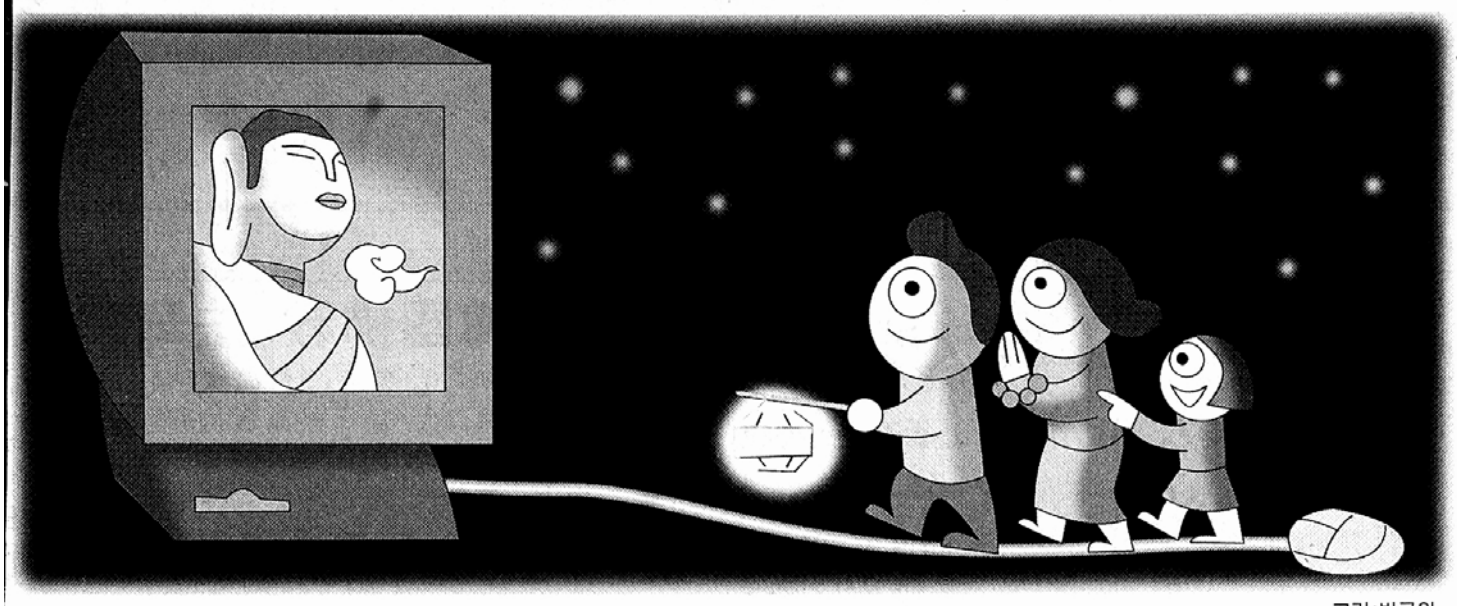

그림:박구원

인터넷 바다서 부처 만난다

사이버 세계에서 부처님을 만난다고? 1년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유인영씨(36, 보현심)의 하루를 따라가 봤다.

남편의 출근과 중1, 중3인 두 딸아이의 등교 뒷바라지를 끝낸 뒤 설거지를 재빠르게 해치운 유인영씨는 오늘은 절에 가는 대신 딸 아이 방 컴퓨터 앞에 앉았다. 연세대 사이버 교육지원센터의 '동양사상과 선'이라는 사이버 강의를 듣기 위해서다.

유씨는 1년전만해도 평범한 불자였다. 집안 대사가 없는 달이면 집 근처 문수사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때론 절일을 돕기도 하는 보통 보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대문구청 문화센터에서 인터넷을 배우고부터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신행활동을 하는 사이버 불자가 됐다. 사실 '너무 자주 절에 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던 남편을 생각하면 시간 배짱 편한 일이 아니다.

유씨는 불교의 넷(net)세상에 푹 빠져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이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큰 스님을 친견할 수 있고, 전국 각 사찰을 돌러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글로 쉽게 풀이된 경전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매일

사이버 불자 유인영씨의 하루

사이버 불교대학서 공부도

매일의 불교계 뉴스도 남들보다 빠르게 알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선불교 강의를 만족스럽게 들은 유씨는 내친 김에 가정의 달 5월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들려 줄 부처님 말씀을 찾아보기로 했다. 테마는 가족. 검색엔진을 통해 불교사이트 '관음법문'을 찾았다. 행복으로 길, 부모공경 등 가족의 소중함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방법에 대한 부처님 말씀과 유명 법사의 법문이 실려 있었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할만큼 없는 정보가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클릭 몇번으로 점심도 해결했다. 공양 뒤에는 배부른 나른함도 쫓고 이틀 뒤로 다가온 어버이날에 시부모님과 친정어머니께 드릴 선물도 살겸해서 쇼핑을 할 작정이다. 동호회만들기 채팅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프리챌에서 채팅으로 만난 사천왕님으로부터 쇼핑몰 몇 개를 소개받아 놓았다. 쇼핑몰 이곳저곳을 살펴 보았지만 선뜻 마음에 내키는 것이 없는 유씨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마하몰에서 108 염주 3개를 사 독실한 불자이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했다.

불과 4~5시간 만에 사이버대학에서 불교공부를 하고, 큰스님 법문도 들으면서 신행활동은 물론 집안 일도 본 유씨는 내일은 사찰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된 조계사 큰스님 초청법회에 참석하러 직접 사찰을 찾을 계획이다. 대불련 출신인 유씨는 문수사 정기법회와 길상사 시민선방에서 참선 수행하는 것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신행하는 수행의 모자람을 채운다. 불교는 직접적인 종교적 신행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에 다가가는 '몸'의 종교이고, 사찰이라는 구심점은 불교라는 공동체를 유지해 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는 '선무도' 사이트에서 익힌 선체조를 따라하면서 피로를 푸는 것으로 사이버 불국토 유영을 마무리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사찰 홈페이지

사이버 사찰 60곳…법문 찬불가 서비스

"사이버 템플(Temple)로 오세요."

국내 인터넷 인구 1천만명. 불과 몇 년 새 우리 삶 깊숙히 들어온 인터넷은 신행생활에도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각 사찰에서 사이버 공간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법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큰스님 육성이 담긴 법문을 듣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야후나 심마니, 라이코스 등 국내 주요 검색엔진을 통해 확인된 '사이버 사찰'은 줄잡아 60여 개에 이른다. 조계종이 40여 곳으로 가장 많지만,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에서도 다투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이들 홈페이지는 사찰 소개와 역사는 물론 사찰 가상 체험, 성보문화재, 법회법문,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고민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신자들을 위해 비공개 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초심자를 위한 인터넷불교학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늘고 있다. 사찰 예절은 물론 불교의 역사, 기본 교리, 의식 등 궁금점을 클릭 한번으로 해결한다. 이밖에 초발심사경문, 육조단경, 법요집을 내려받기로 공부하고, 불교음악을 직접 들으며 배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다.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달마넷에 등록된 사찰 홈페이지 수는 357개. 국내 검색엔진에 등록된 60여 곳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인 관리가 소홀한 곳이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사찰소개 같은 기본적인 콘텐츠 외에 참여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곳도 많다. 제때 업그레이드가 안돼 두달전 법회안내가 게시판에 버젓이 올라있는 곳도 눈에 띈다. 신행생활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와 함께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 볼만한 사찰 사이트

- ▶납골당 안내-갈월사(galwolsa.bz.co.kr), 장안사(//www.jangansa.or.kr), 수도사(user.chollian.net/~sudosa1)
- ▶불국사(www.bulguksa.or.kr)-사찰 가상체험
- ▶보은사(www.boeunsa.or.kr)-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범어사(myhome.sinbiro.com/~cashbank)-과거, 현재, 미래 테마별 정리
- ▶보문사(myhome.shinbiro.com/~bomun/home.htm)-찬불가배우기
- ▶봉원사(www.bongwontemple.or.kr)-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소개
- ▶성보박물관-수덕사(www.sudoksa.com), 통도사(www.tongdosa.or.kr), 직지사(www.chikchisa.or.kr)
- ▶오어사(www.oosa.or.kr)-포항의 볼거리·먹거리
- ▶한마음선원(www.hanmaum.org)-미디어법당, 인터넷 방송
- ▶해운정사(www.seon.or.kr)-한국의 선사와 참선, 법맥
- ▶정토법당(www.gbs.or.kr)-인터넷불교학교
- ▶축서사(www.chooksersa.org)-비공개 상담실, 사찰 둘러보기

부처님 가르침은 인터넷 시대의 열매

전문가 의견

이종철
〈한국정신문화원 교수〉

과학과 불교의 '사이(間)'를 본다. 끊임없이 경험적 지식을 축적해가며, 그 대상 영역을 확장해 가는, 세계의 실상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서려는 진리 추구의 열정. 그렇다고 해서 확인된 경험자료 이상의 것을 강변하지는 않는 정직성. 이 점에서 과학과 불교의 정신은 같다. 하지만 생(生)과 생을 넘나드는 광활함, 일상 경험만 가지고는 모자라 선정체험까지도 경험 영역 안에 감싸안는 실험성, 이 점에 과학만으로는 아직 다 설명할 수 없는 불교의 세계가 있다.

분석가들은 한결같이 현대를 '지식정보사회'로 규정한다. 문화적 자존심이 높은 유럽인만이 영어제국주의에 맞서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 현대인은 대부분 정보의 바다에서 인터넷 서핑을 즐기며 정보사냥에 나선다. 지금 당장은 변두리에서 서성대던 사람들도 곧 합류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주변 상황은 번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말이다.

이제 '인터넷(inter-net)'은 지구적 규모의 새로운 문화복합체를 꾀하고 있다. 불교 쪽에서도 이 시대에 나름의 목소리를 키우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인터넷 시대의 본질 규명, 이에 따른 관계정립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여실지견(如實知見)이 불교가 추구하는 길인 한, 과학적 지식의 확충 및 심화는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다면 유용한 정보, 과학적 지식의 공유를 모토로 삼는 인터넷 시대의 도래는 환영할 일이지 외면할 일은 아니다. 이 정보의 대해에 불교의 지식을 띄워보면 어떨까? 하여 과학적 지식과 불교적 지식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창하게 불국토 건설 구호만 외칠 일이 아니다. 그 보다는 실질적인 초석 하나 다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전세계 불교도 또는 불교 동호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고 있다. 불교 자료는 이미 인터넷상에 산적해 있다. 빨리 대장경, 티벳어 대장경, 한역 대장경, 산스크리트어 문헌,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렇듯 불교학자들 사이에 세계적 규모의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불교저널도 나오는 형국이니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고도화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고급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학적 지식과 불교적 지혜를 구분한다. 과학적 지식이 생(生)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지 않는 한, 과학적 지식은 불교적 지혜를 얻기 위한 도정으로서만 그 존재 의의가 있다. 정보의 대해에는 함정이 많다. 있으나마나 한 정보가 득실댈 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가 뒤섞여 있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불교에 기초적인 바탕이 없는 사람은 불교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지 못한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무수한 자료들을 식별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불교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헌학적, 인문학적 기본 소양을 기르는 일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다언어불교용례사전'이니, '통합대장경'이니, '불교문화지도'니 하는 '불법의 이정표'를 정보의 대해에 띄울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과학이 이루어낸 온갖 지식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모여든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세속제(世俗諦)의 집결지이다. 이 세속제가 길을 잃지 않고 자내증(自內證)의 세계인 진제(眞諦)로 향하도록 불교의 지식을 곳곳에 이정표로 세워두면 좋지 않을까? 과학적 지식이 인터넷 시대를 꽃피웠다면, 그 꽃이 지향하는 열매는 궁극적 진리의 세계,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과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신라 대국통(大國統)이자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1,400여 년만에 처음으로 친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금생(今生)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처음으로 공개되는 경주 감은사탑 사리구를 비롯한 **전국 50여 기의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보물 사리장엄구들이 함께 공개**되오니 모든 불자님들은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구경성불의 선근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영축총림통도사주지 薪虛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 법회일정안내 ◆

사리 이운식
· 일 시 : 2000년 5월 27일 12시 (관음재일)
· 장 소 : 통도사 부도전 및 성보박물관 입구

사리 친견법회
· 일 시 : 2000년 6월 2일(5월 초하루)부터 2000년 7월 30일까지
· 장 소 :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홀

법회안내
· 박물관 / 전화 0523) 382-1001
팩스 0523) 384-0030
· 종무소 / 전화 0523) 382-7182

※사리 친견은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